

## 해암 김응정의 생애와 문학

정기선\*

<차 례>

1. 서론
2. 『해암집』의 자료적 고찰
3. 김응정의 삶과 의식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16, 7세기 강진의 재지사족 시조 작가인 해암 김응정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고찰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1773년에 간행된 김응정의 문집 『해암집』 초간본을 입수하지 못하고 1905년에 간행된 중간본만을 자료로 삼았다. 여기에서는 초간본과 중간본을 비교하여 초간본에 수록된 시조와 한시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그의 작품세계와 작가의식을 함께 고찰했으며 그와 관련된 다른 문인들의 문집 등을 참고하여 그의 생애를 보다 입체적으로 재구했다.

김응정은 자신이 나고 자란 강진에서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충효라는 유가적 이념에 충실한 삶을 살았으며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상당했다. 하지만 출사를 거절한 채 자신의 생활공간인 향촌에서 일생을 보냈다. 사족으로서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거부했기에 그에 따른 고민과 갈등은 여전했다. 그는 강호자연이라는 대안적 공간에서 자신의 처지와 같은 다른 재지사족들과 교류하며 신선과 같은 자유로운 생활 속에서 그것들을 해소하고자 했다.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김응정, 해암집, 시조, 강진, 향촌, 재지사족, 강호자연

## 1. 서론

해암(懈菴) 김응정(金應鼎, 1527~1620)은 16세기 초엽에 태어나 17세기 초엽에 생을 마친 시조 작가이다. 진동혁의 연구를 통하여 조식 혹은 양응정의 작으로 알려진 <三冬애 뵈웃 님고>의 실제 작자로 밝혀졌으나<sup>1)</sup> 작자와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그쳤을 뿐 작자의 생애를 재구하고 이를 통해 그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으며, 18세기 초반에 간행된 『해암집(懈菴集)』의 초간본을 입수하지 못한 채 20세기 초에 간행된 『해암집』의 중간본만을 자료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김응정은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전쟁과 선조와 광해군 교체기에 일어난 정치적 혼란을 자신이 나고 자란 강진에서 몸소 겪으면서 중앙정치와는 거리를 둔 채 자신의 고향에서 사족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자연에서의 풍류를 즐긴 재지사족(在地士族)<sup>2)</sup>이었다. 우리가 그를 주목하는 것은 그의 삶이 비단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특수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 향촌에서 태어나고 그

- 
- 1) 진동혁, 「김응정 시조 연구」, 『국어국문학』 90, 국어국문학회, 1983, 279~297쪽; 진동혁, 「김응정론」, 한국시조학회 편,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114~135쪽.
  - 2) 재지사족은 ‘재경(在京)에 대칭되는 지역적 범위로서의 ‘재지(在地)’와 ‘이족(吏族)’에 대칭되는 신분으로서의 ‘사족(士族)’을 지칭한다. 이들은 대체로 고려의 향리 가문 후예로 여말 선조에 이르러 첨설직(添設職)·동정직(同正職)·군공(軍功)·과거(科擧) 등을 통해 이족에서 사족으로 신분상승했거나, 고려 후기 이래 상경하여 벼슬을 하다가 왕조교체를 포함한 여말 선조의 정치적 격변기에 본향(本鄕)·처향(妻鄕)·외향(外鄕)을 따라 낙향하여 재지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던 계층이었다.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21쪽.

곳에서 생활하며 환로에 나아가지 않은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김응정과 유사한 삶을 살았다. 특히 17세기 시조 문학사에서 새롭게 등장했다고 평가받는 사대부 작가들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sup>3)</sup> 김응정의 생애가 16, 7세기에 걸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는 새로운 작가층의 출현을 예고하는 작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김응정의 문학세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해암집』 초간본과 중간본에 수록된 시조 작품에 대한 자료적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의 문학세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연구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물론 <三冬에 뵈옵 님고>처럼 작자에 대한 논란이 있는 작품을 비롯한 개별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활공간인 향촌과 그것의 대안적 공간인 강호자연에서의 삶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조를 비롯한 한시 작품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그와 관련된 여러 문인들의 문집 속에 나타난 그의 행적을 재구성하여 그가 지향하던 삶의 모습과 그의 작가의식을 함께 고찰하도록 하겠다.

## 2. 『해암집』의 자료적 고찰

김응정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알 수 있는 주된 자료는 그의 문집인 『해

---

3) 이상원은 16세기 시조와 17세기 시조의 변별점으로 새로운 작가층의 등장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시기에 등장한 새롭게 등장한 이들 작가층은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벼슬을 한 경력이 거의 없는, 평생을 향촌에서 자신의 처지와 생활을 시조로 읊은 작가들로서 김득연(金得研, 1555~1637), 박인로(朴仁老, 1561~1642), 강복중(姜復中, 1563~1639), 정훈(鄭勳, 1563~1640), 이중경(李重慶, 1599~1678), 이휘일(1619~1672), 장복겸(張復謙, 1617~1703)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 이상원, 『17세기 시조사의 구도』, 월인, 2000, 31~32쪽 참조.

암집』이다. 『해암집』은 1773년에 초간본이, 1905년에 중간본이 간행됐다.<sup>4)</sup> 1772년 권상하의 증손자인 권진응이 제주도 유배에서 풀려나 서울로 돌아가던 중에 들린 강진에서 김응정의 후손 김명언의 부탁으로 서문을 작성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후손들은 김응정의 문집을 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sup> 그러나 유문을 제때에 수습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나머지가 간행됐고, 이후 시간이 오래되면서 인멸될 것을 두려워하여 후손들에 의해 다시 중간본이 간행됐다.<sup>6)</sup>

김응정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중간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김응정을 최초로 학계에 소개한 전광현은 초간본을 구득하지 못했으며<sup>7)</sup> 김응정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소개한 진동혁도 김응정의 후손가를 통해 중간본만을 입수했을 뿐이다.<sup>8)</sup> 그런데 최근 강진 지역 시조 작가와 작품을 연구한 배대웅은 1773년에 간행된 『해암집』의 초간본을 입수하여 김응정에

- 
- 4) 초간본과 중간본을 비교하거나 또는 중간본에 있는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만 중간본임을 밝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본고에서 언급하는 『해암집』은 모두 초간본을 의미한다.
- 5) “余自海島蒙恩而歸行過康津, 康津人往往頌公之德不衰, 又因其孫命彥得見公歌詩事跡, 始信前知之非誤, 而恨不能用於世以展其負抱, 雖然自古賢人之隱於海曲, 終身不見知者多矣.” 권진응(權震應), 『서문』, 『해암집』.
- 6) “遺文不以時收, 畸零斷爛, 既嘗刊行矣. 世久磨滅, 恐遂湮沒, 謀重印而廣其傳. 後孫沂變致長老之命, 徵余文.” 기우만(奇宇萬), 『서문』, 『해암집』 중간본.
- 7) 전광현은 자신이 입수한 『해암집』이 초간본이 아닌 중간본임을 밝히면서 중간본에 수록된 작품들이 후기 근대국어의 표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초간본과 비교하는 작업이나 교우한 문인들의 문집을 검토하는 작업이 있기 전에는 확실한 단안을 내리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전광현, 『김응정의 시조』, 『서림』 2,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회, 1972, 재수록: 『국어사와 방언』 3, 월인, 2003, 126~128쪽 참조.
- 8) 진동혁은 후손가를 통해 열람한 『해암집』이 초간본인지, 중간본인지 그 여부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논문에서 중간본만의 서지를 언급하고 있는 점, 중간본에 새롭게 수록된 작품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초간본은 입수하지 못한 채 중간본만을 열람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김응정의 후손가에서 초간본이 아닌 중간본만을 보관했다는 사실은 후손가에서도 일찍이 초간본을 보관하지 못했음을 짐작케 한다. 진동혁(1983), 280~281쪽 참조.

관한 연구를 함께 진행했다.<sup>9)</sup>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773년에 간행된 초간본은 1권 1책의 유일본으로, 강진 와보랑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sup>10)</sup> 1905년에 간행된 중간본은 2권 1책으로, 강진향교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후 1994년 강진문헌연구회에서 중간본을 국역하고 영인한 바 있다.<sup>11)</sup>

여기에서 초간본과 중간본의 문제를 주목한 것은 선행 연구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중간본에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후대에 만들어진 중간본은 초간본보다 더 많은 자료를 수록하기 마련이다. 초간본 당시에 수록하지 못한 자료나 초간본 이후에 만들어진 자료를 수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암집』 중간본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이몽제의 한시<sup>12)</sup>와 위백규의 축문<sup>13)</sup>이 중간본에 실린 것

- 9) 필자는 배대응의 연구를 알지 못한 채, 2015년 10월 9~10일 초간본을 소장하고 있는 강진 와보랑계 박물관을 방문하여 초간본을 실견했고, 이 논문을 투고하기 직전 배대응의 연구를 확인했다. 비록 초간본을 최초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강진 지역의 여러 작가들에 초점을 두었기에 배대응의 연구에서는 초간본과 중간본의 문제, 김응정의 시조와 한시 작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배대응, 『조선시대 강진 지역 시조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95쪽.
- 10) 필자와 배대응이 확인한 『해암집』 초간본 원본은 강진 와보랑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이것을 이미지화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 11) 김응정, 양광식 역, 『해암문집』, 강진문헌연구회, 1994.
- 12) 이몽제(李夢梯), 「추회선생운(追懷先生韻)」, “公議會看院宇成, 吾鄉昔有大先生. 出天至孝俱便養, 憂國貞忠倡義聲. 玉洞尙留嘉遯跡, 白堂爭仰世傳名. 日落西山歌一曲, 此翁心事萬年明.”, 『해암집』 중간본.
- 13) 위백규(魏伯珪), 「용호사추향고유문(龍湖祠追享告由文)」, “尙德作祀, 敦風淑世, 維孝維忠, 暨尙其志, 載之邦典, 立之社尸, 靡哲不舉, 式自先古, 猗歎金公, 篤生南紀, 因天之孝, 絕俗之豪, 斂其英氣, 樂飢于泌, 湖山一驢, 襟期千古, 放歌天地, 白雪疇和, 懈以名菴, 感纏風樹, 壯圉投疏, 孰謂遯果, 天際輕陰, 落日悲懷, 江鷗匪擾, 其音益遐, 國香埋谷, 久猶不沫, 載尸載祀, 言定百世, 楓山扶輿, 錦水漣漪, 有儼明祠, 往哲所右, 錦南英華, 龍湖芳模, 嘉義魁特, 曾是並酌, 念公遺芬, 允宜酸佈, 秩以年代, 共薦醴祖, 濟濟執灌, 翼翼承楫, 一方矜式, 永言在茲, 潔牲崇禱, 敬

을 들 수 있다. 김응정과 동시기에 활동한 광기수의 증언에 따르면 강진은 과거 급제가 매우 드문 곳이었다고 한다.<sup>14)</sup> 따라서 진사시에 2등으로 급제한 이몽제는 향촌 사회에서 굉장한 주목을 받았을 것이며 문과에 실패하여 낙향한 이후에도 향촌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인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sup>15)</sup> 그리고 조선 후기 연시조 「농기구장」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위백규는 강진 인근 장흥 출신으로 당시에 상당한 명망을 갖춘 인물이었다.<sup>16)</sup> 따라서 김응정을 현양할 수 있는 이몽제의 한시와 위백규의 축문은 중간본 간행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수록해야 할 자료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본에 수록된 자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요구되는 것은 초간본에는 한시 4수와 시조 6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반해, 중간본에는 추가로 시조 2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작품이 초간본에 수록된 작품들과 비교해 여러 점에서 이질적이기 때문이다.<sup>17)</sup>

---

告肇事, 尙饗.” 『해암집』 중간본. 그런데 위백규의 『존재집(存齋集)』 권22에는 그 제목이 「금호사강진해암김공추향축문(錦湖祠康津懈菴金公追享祝文)」으로 되어 있다.

14) 광기수(郭期壽)의 「금릉사마재기(金陵司馬齋記)」에 따르면 강진은 궁벽한 고을로서 과거 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지 못하여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에 급제한 이들을 위한 사마재를 두지 못했다고 한다. 광기수, 「금릉사마재기」, 『한벽선생문집(寒碧先生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455, 경인문화사, 1991.

15) 이몽제·이언근, 『모청당유고(慕淸堂遺稿)·만촌집(晩村集)』, 전라남도, 1987, 3~4쪽 참조.

16) 김석희,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이회문화사, 1995, 56~57쪽 참조.

17) 초간본에는 한시 <題金陵鳳凰臺>, <過洛東江作詩船遊人>, <題停仙臺>, <題冠山三佳亭>과 시조 <聞明廟昇遐作>, <掃墳雪>, <職帖下作此不起>, <金兵使被拿時作此贈之>, <聞反正>, <歎孔子>가 수록되어 있다. 중간본에는 이들 작품 외에 시조 <作拒凶黨>, <感懷> 2편이 추가로 수록되어 있다.

作拒凶黨

門前の 梧桐 수문 뜻은 鳳凰 솔라 숨어셔니  
 鳳凰은 아니 소고 烏鵲만 진 친다  
 童子아 밤비 나가 烏鵲을 처라

感懷

가난을 파려하고 細柳營 도라드니  
 年少 豪傑더리 사 리야 만테마는  
 이너 風月 兼하야 달느기로 팔디 말디

먼저 이들 시조 2편은 다른 6편의 시조 작품들과 비교해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들 2편은 공통적으로 마지막 행의 마지막 음보가 생략되어 있다. 먼저 “童子아 밤비 나가 烏鵲을 처라”의 경우, 문장 구조상 모든 성분을 온전히 갖추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시행은 시조의 기본 율격인 4음보로 자연스러운 율독이 가능하지 않다. 의미를 고려할 때 ‘童子아’, ‘밤비 나가’, ‘烏鵲을 처라’로 3개의 음보로 구분하여 율독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시조를 4음보격 3행시라고 정의할 때, 이 작품의 마지막 행은 시조의 기본 율격인 4음보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그리고 “이너 風月 兼하야 달느기로 팔디 말디”의 경우, 문장 구조상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주체 곧 화자의 정서적 태도를 집약하는 구문이 생략되어 있다. 마치 종장의 마지막 음보를 생략하여 부르는 시조창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이에 반해 중간본과 초간본에 공통적으로 실려 있는 작품들은 마지막 행의 마지막 음보가 전혀 생략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초간본에 있는 각 작품의 마지막 행들만 놓고 볼 때 “西山새 히 지다 하니 그를 설취 흐노라”, “서터서 발 스려 울니요 말씀 아니하실식 우노라”, “굴움의 이슬이 짓터시니 놀애 저줄가 못 느노라”, “聖君이 明見萬里 外흐시니

그를 밋고 니거라”, “山林세 굽고전 술이아 곳지 잇사 지라”, “늬라셔 萬古長夜을 드시 붉게 흐리소” 등은 모두 4개의 음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마지막 구문도 전혀 생략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왜 1905년에 간행된 중간본에 수록된 2개의 작품만 마지막 행의 마지막 음보가 생략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다만 이들 작품이 초간본에 수록된 작품과 형태적으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이들 작품들을 활용하여 김응정의 문학세계를 설명하는 일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마도 후손들은 이들 작품들이 김응정의 생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판단했기에 이들 작품을 중간본에 추가로 수록했을 것이다. “門前의 梧桐 수문 뜻은 鳳凰 술라 숨어셔니”로 시작하는 작품의 경우, ‘作拒凶黨’, 곧 흉당을 척거하고 지은 것이라고 문집에 부기되어 있다. 흉악한 역적의 무리를 뜻하는 흉당은 김응정과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이들로 해석된다. 김응정의 생애와 관련지어 볼 때, 강진에서 이이첨과 관련된 무리가 인목대비 폐출에 대한 모의를 하자 김응정이 달려가 그 상소문을 빼앗아 찢고 그 무리를 물리쳤다는 사건이 주목된다.<sup>18)</sup> 이 사건은 김응정의 행장은 물론 호남 지역 의병들의 행적을 기리기 위하여 편찬된 『호남절의록』<sup>19)</sup>에도 공히 기록됐다. 주지하다시피 이이첨은 1608년에 광해군을 즉위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로 1613년 계축옥사를 일으켜 영창대군을

18) “光海牛蛇之際, 有承望當路權凶風旨者, 聚若干無賴輩會于鄉校謀上疏廢母后事, 公聞之不勝憤嫉, 遂決起人會所手奪其疏稿裂之于前會者, 遂色沮而罷至. 今故老傳誦爲美談.” 이의경(李毅敬), 『해암김선생행장(懈菴金先生行狀)』, 『해암집』 참조

19) 『호남절의록』은 임진왜란과 양대 호란, 이괄의 난과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을 때 활약한 호남 지역 의병들의 행적을 기록·정리한 책이다. 여기에서 김응정은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의 아들 고종후(高從厚)와 함께 창의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해암집』 중간본에는 『호남절의록』에 실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김동수 교감·역주, 『교감·역주 호남절의록』, 경인문화사, 2010, 116쪽 참조.

강화도에 안치하여 죽게 하고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을 사사시켰으며, 폐모론을 주장하여 1618년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킨 대북과의 영수였다. 실제로 강진에서는 1617년 복인 세력들이 조식을 배향하는 서원을 세우고 이를 거점으로 활용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sup>20)</sup>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김응정의 후손들은 이 작품으로 말미암아 김응정의 의리와 충정을 더욱 기릴 수 있으리라 믿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난을 파려하고 細柳營 도라드니”로 시작하는 작품에서 화자는 세류영에 가서 자신의 가난을 연소한 호걸들에게 팔고 싶어 한다. 여기에서 세류영은 김응정의 고향 강진에 위치한 전라병영을 환유한 표현이다. 원래 세류영은 중국 한나라 문제 때 주아부가 설치한 군영으로, 문제가 시찰을 왔으나 세류영의 군사들이 주아부의 명령만 따르면서 황제를 제지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후 세류영은 군기가 엄한 장군의 군영 혹은 총사령부를 뜻하는 고사를 상징하게 됐다.<sup>21)</sup> 김응정의 고향 강진은 조선 초기부터 전라병영이 설치되어 19세기 말까지 존치된 곳이기도<sup>22)</sup> 전라병영을 환유하는 세류영이라는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곳이다. 그리고 전라병영으로 인한 상업과 상권의 발달로 이 지역은 화자의 가난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가진 호걸들이 있을 법한 지역이기도 했다.<sup>23)</sup>

20)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9년(1617) 7월 12일자 기사 참조.

21) 『사기』 권57 강후주발세가(絳侯周勃世家) 참조.

22) 일찍이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연해(沿海) 지역으로 왜구의 침범이 빈번해지자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관방(關防)들이 이설되기 시작했고, 태종 17년(1407)에 전라병영이 광주에서 강진으로 옮겨왔다. 선조 32년(1599) 임진왜란 이후 진관체제(鎭管體制)의 대대적인 정비로 일어나면서 전라 병영이 장흥으로 옮겨졌으나 그곳 민심이 이반된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다시 6년 만에 강진으로 복귀했다. 이후 전라병영은 강진의 병영성에 계속 존치하다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발발과 함께 농민군들에게 함락되어 병영성과 인근 시가지가 거의 소진됐고, 이후 관방으로서의 역할도 마감하게 됐다. 강진군·강진문화원, 『강진군지』 1권, 강진군지편찬위원회, 2012, 169~181쪽 참조.

김응정이 생활한 삭둔동은 현재 행정구역상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에 속하는데 이곳은 당시 전라병영이 위치한 곳과 매우 가까운 곳이기도 했다.<sup>24)</sup> 결국 이 작품에 나타난 전반적 상황은 김응정의 생활공간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중간본에만 수록된 이들 작품은 김응정의 생애는 물론이거니와 김응정의 고향인 강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김응정 소작으로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간본에 수록된 작품들과 비교해 이질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 작품의 완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간본에 수록된 작품을 활용하기보다는 초간본에만 수록된 작품을 활용하여 김응정의 문학 세계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간본과 중간본에 수록된 모든 작품에는 나름의 정보가 부기되어 있다. 이들은 작품 창작과 관련된 외부적 정보 또는 작품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부기된 정보가 김응정의 생애와 특별한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아래의 작품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 聞反正

仁風이 부는 날 밤의 鳳凰이 수단 말가

23) 현지답사를 통해 현지 주민들이 병영성이 위치한 현재의 병영면을 세류라고 부르며, 병영면에 세류교(細柳橋)라는 다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시가 들어설 정도로 이 지역의 상업과 상권이 발달했다는 주민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다. 강진군지에 따르면 강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도가 발달한 곳이지만 병영이 들어서게 되면서 병영을 중심으로 주변의 상업이 성장했고, 이를 통한 각종 물자의 제조와 판매, 숙박업 등 상권이 형성되면서 유통 경제도 함께 성장했다고 한다. 실제로 1830년 『임원경제지』에는 강진의 병영장이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 강진군·강진문화원, 『강진군지』 1권, 강진군지편찬위원회, 2012, 161~162쪽 참조.

24) 강진군 마을사 편찬위원회, 『강진군마을사 병영면편』, 강진군, 1991, 347쪽 참조.

滿城桃李는 지는이 곳시로다 置之하라  
山林세 곱고전 술이야 곳지 잇사 지라

위의 작품에는 ‘聞反正’이라는 기록이 부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반정은 ‘난을 다스리고 바름으로 돌아간다[撥亂反正]’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특히 조선시대에는 1506년 중종반정과 1623년 인조반정과 관련되어 사용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모두 김응정이 생존하던 시기에 일어나지 않았다. 이 작품은 성 안에 가득한 도리와 산림에 있는 소나무를 대비하는 내용으로, 기존 연구에서 설명한 난리와도 특별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sup>25)</sup> 따라서 이 기록은 김응정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김응정의 작품을 정리하면서 부기됐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자료적 고찰을 통해 김응정의 문학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간본에 수록된 작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그의 작품이 많은 가집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노래로 표현하는 데 굉장히 능숙한 인물이었다. 18세기 서화 수집가 겸 평론가로 유명한 이하곤은 강진으로 귀양을 간 장인 송상기를 찾아가면서 호남에서의 견문을 기록으로 남겼다.<sup>26)</sup> 강진 백양촌에서 김응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며, 김응정이 정철과 친했으나 은거하여 벼

25) 진동혁은 이를 “난리(임진란, 정유재란)가 평정됨을 듣고 지었다.”고 설명했다. 진동혁(1983), 294쪽.

26) 이하곤(李夏坤)은 1722년 10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호남지방을 여행하고 그에 대한 견문을 기행시 『남행집(南行集)』과 기행문 『남유록(南遊錄)』으로 남겼다. 『남유록』에 따르면 이하곤은 1722년 11월 6일 강진에서 장인 송상기를 만났고, 11월 12일 강진 백양촌(白羊村)에서 김응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하곤, 『두타초(頭陀草)』 책17, 『남유록』 참조.

슬하지 않았고, 문사(文詞)에 능하며 소령(小令) 짓기를 좋아하여 여러 곡을 지었는데 아직도 그의 후손가에 전한다고 기록했다.<sup>27)</sup> 또 강진에서의 견문을 『강진잡시(康津雜詩)』라는 10수의 한시에도 남겼는데, 김응정이 지은 가사가 정철의 <관동별곡>과 쌍벽을 이룬다고 평하기도 했다.<sup>28)</sup> 그리고 19세기에 편찬된 강진의 여러 읍지에서 김응정이 노래를 잘 지어 느낀 바대로 부른 것이 더할 수 없이 청절(淸絶)하다고 기록되어 있다.<sup>29)</sup> 이들 기록들이 김응정의 후손을 비롯해 그의 고향 강진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준수할 수는 없지만 당대 최고의 감식안을 자랑하는 이하곤의 호의적인 평가와 몇 백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고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김응정의 작품이 상당한 문학적 완성도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 3. 김응정의 삶과 의식

#### 1) 생활공간인 향촌에서의 삶

김응정은 1527년 강진에서 태어나 자신의 고향에서 일생을 보내다가

27) “至白羊村，昔有處士金應鼎居之。與松江相友善，隱居不仕，能文詞，尤喜作小令，所作諸曲，尙藏其孫家云。” 이하곤, 『두타초』 책17, 『남유록』 참조.

28) “其八 白羊村裡金處士，一生知己鄭松江。歌詞膾炙聞猶在，可作關東別曲雙。” 이하곤, 『두타초』 책10, 『남행집』 하.

29) “索遯洞在花芳山北麓，故處士金應鼎隱居洞也。自號解菴事父母至孝，親沒廬居于此，因居四十餘年，終身哀慕之。明宣二廟，陟方時，皆服喪三年有西山日落之曲，觀察使崔瓘薦除敬陵參奉不就。壬辰亂躬煮鹽賣私田，以供軍餉至五百石，尤善作歌隨感率口，無不清絕，有歌曲集行于鄉，鄉人至今稱爲金處士，申命奎有詩曰，處士平生一褐衣，惟將巖壑樂烟菲，自有陽春寡和曲，希音長伴短筇揮。” 『호남읍지』 제2책, 규 12175, 1871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전라도읍지』 1,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

1620년 9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자는 사화(士和), 호는 해암이며, 본관은 도강(道康)이다.<sup>30)</sup> 그의 본관인 도강은 강진의 옛 이름으로, 강진은 조선 태종 17년(1417) 광주에 있는 전라 병영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도강현과 탐진현을 합쳐 만들어졌다. 이곳을 본관으로 하는 도강 김씨는 조선 전기 강진의 대표적 토성<sup>31)</sup> 중 하나로 고려 때 도강백에 봉해진 김희조(金希祖)를 시조로 하는데, 이후 세계가 실전되어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4명의 후손들에 의해 4개 파를 형성하여 세계를 잇고 있는데, 김응정은 고려시대 문하평리시적을 역임한 김을경(金乙卿)을 파조로 하는 강진 시적공파에 속한다.<sup>32)</sup> 김응정의 행장에 따르면 증조부 김치공(金致恭)은 성균관 생원을, 아버지 김한걸(金漢傑)은 참봉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sup>33)</sup> 아마도 그의 집안은 고려시대에 낙향하여 강진 지역에 세거한 재지사족 집안으로, 김응정과 가까운 시기부터 중앙 정계로 진출하지 못했다고 추정된다.

어린 시절 김응정은 준수한 외모와 비범한 총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

30) 이의경, 『해암김선생행장』, 『해암집』 참조

3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7 전라도 강진현 참조

32) 중앙일보사 편, 『성씨의 고향』, 중앙일보사, 1989, 262쪽 참조; 이의경, 『해암김선생행장』, 『해암집』 참조

33) 김응정의 행장은 『해암집』과 행장을 찬한 이의경의 문집 『동강선생유고(桐岡先生遺稿)』에도 실려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동강선생유고』와 『해암집』에 수록된 두 개의 행장을 비교해보면 글자의 출입은 물론이거니와 내용의 차이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해암집』에는 세대가 별열을 이루었다고 하여 파시조인 김을경이 시적을, 김분(金粉)이 부운을, 김천우(金天佑)가 진사를, 김감(金鑑)이 경상도판찰사를, 김승손(金承孫)이 생원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동강선생유고』에는 도강 김씨가 고려 때 저명한 성씨였으나 집안의 보첩이 병화로 소실되어 6대조 김천우(金天佑) 이상의 세계가 전해지지 않으며 5대조 김감(金鑑)이 경상도사를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김응정에 관한 기록이 오랜 시간 동안 가전되어 오다가 후대에 문집으로 편찬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 따라 두 개의 행장을 상호 비교하여 참조하고자 한다.

모를 섬기는 게 독실하여 일찍이 향리에서 효동으로 유명했다. 1560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예를 다하여 장례를 치르고 직접 흙을 날라 손으로 봉분을 올려 쌓았으며, 시묘를 하면서도 매일 아침 분가에 가서 어머니에게 문안을 묻고 음식상을 살폈다. 상을 치른 지 1년이 지나면 외제(外除)라고 하여 상복을 벗고 지내는 게 일반적이는데 김응정은 그 이후에도 시묘를 계속하며 아침저녁은 물론 삭망마다 제사를 지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또 시묘를 하여 모두 6년을 시묘에 바친 독실한 효자였다. 그의 호가 해암인 것도 아버이를 잃은 애통함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아버이를 위해 친히 밭 갈고 낚시질하여 봉양을 하고 싶지만 아버이가 돌아가셔서 이 같은 일에 게을러졌다 하여 호를 해암이라고 했기 때문이다.<sup>34)</sup> 지극한 효자였던 김응정은 부모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아래의 노래로 남겼다.

白雪이 자즌 골에 벼웃에 보선 벗고  
 墳墓 우회 눈 쓰다ᄃ 뷔 안고 우는 뜻은  
 어디서 밭시려 울니요 말습 아니하실시 우노라

눈 내리는 겨울 화자는 벼웃을 입고 봉분 위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화자가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벼웃을 입고 있는 것은 화자가 시묘 중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성긴 벼웃을 입고 버선까지 벗은 화자가 눈을 쓸고 있는 모습은 화자의 지극한 효성을 형상화한 부분이며, 돌아가신 부모 생각에 눈을 쓸던 비를 안고 우는 화자의 모습은 부모에 대한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아버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여 노래한

34) 이의경, 『해암김선생행장』, 『해암집』 참조

김응정은 노래를 짓고 부르는데 남다른 능력이 있었다. 행장에 따르면 그는 어릴 적부터 음률에 밝아 좋은 경치를 대하면 노래를 지어 흥중의 기묘함을 드러냈다고 한다.<sup>35)</sup> 이와 같이 노래를 잘 지어 부르고 독실한 효자로 유명한 그가 세상의 명망을 얻게 된 것은 임금의 상을 부모의 상에 준하는 삼년상으로 치렀기 때문이다. 1565년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승하하고 1567년 명종이 죽었을 때에도 김응정은 각기 3년 동안 상복을 입었다. 더욱이 1608년 선조가 죽었던 때에 김응정은 80세의 고령이었지만 몸소 곡하며 부모의 상에 준하여 삼년상으로 치렀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김응정은 충효지행(忠孝之行)과 청개지절(淸介之節)로 적지 않은 명망을 얻게 됐다.<sup>36)</sup>

이러한 점에서 김응정은 조선 시대 사족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유가적 이념인 충과 효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실천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도 유가적 이상을 실천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아래의 작품을 통해 사족으로서 김응정이 지향하던 세계관을 짐작할 수 있다.

天統地統하니 三才에 仲尼로다  
 天中 日月과 仲尼곳 아니런달  
 뉘라서 萬古長夜을 드시 밝게 흐리요

천지인삼재로 구성되는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만고장야로 인식하며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35) “自少曉音律，遇境輒爲歌調，聊發胸中之奇，如西山日落之章，尙流傳于世。” 이의경, 『처사해암김공행장(處士懈庵金公行狀)』, 『동강선생유고』 권6, 한국역대문집총서 457, 경인문화사, 1991 참조

36) 이의경, 위의 책 참조

공자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다시 밝게 할 수 있을까라는 탄식을 한다. 화자의 탄식은 세상에 대한 근심의 발로일 것이다. 자신이 처한 현실세계를 기나긴 밤으로 비유하고,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존재로 해와 달과 더불어 유학의 비조인 공자를 제시했다는 사실은 공자와 같은 성인이 출현해야 만이 비로소 이 세계를 다시 밝힐 수 있다는 화자의 유가적 세계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세계관은 사족이라는 작자의 신분적 정체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관직이었다.<sup>37)</sup> 관직이 있어야 만이 현실 정치에 진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응정은 자신의 고향인 강진에서 처사로 일평생을 보냈다. 30대 중반까지의 행적이 행장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족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한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고민과 갈등은 여전했을 것이다. 현실 정치에 대한 김응정의 복잡한 심리가 나타난 작품으로 아래의 작품을 들 수 있다.

三冬에 뵈웃 넓고 巖穴의 눈비 마자  
 굴움 썬 벗뉘랄 썬 적슨 업건마는  
 西山에 히 지다 하니 그를 설워호노라

37) 사족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지배층을 뜻하는 양반·사대부·사족·사류·사림 등의 용어에 관한 연구사를 정리한 김성우에 따르면 사족의 개념과 범주는 종종 대에 사족과 토호를 엄격히 분리하기 위하여 논의에서 시작하여 '4조 내의 가운데 한쪽이라도 과거 혹은 음서로 문·무과 정직 6품 이상에 진출한 관료를 배출한 가문의 후손 및 생원·진사'로 범주가 확장됐고, 이것이 『각사수교』에 등재되어 법적용어로 확정됐다고 한다. 이는 사족의 사회적·신분적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관직이었음을 말해준다. 김성우, 「조선시대 '사족'의 개념과 기원에 대한 검토」, 강만길 편,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2000, 349~350쪽 참조.

먼저, 이 작품의 작자는 작품을 수록한 자료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씨본 『해동가요』를 비롯하여 『해동가요』 계열에 속하는 가집들에서는 조식으로, 진본 『청구영언』을 비롯하여 『청구영언』 계열에 속하는 가집들에서는 양응정으로 되어 있다. 한편 19세기 후반에 필사된 박씨본 『시가』 등의 가집에서는 무명씨 작으로 되어 있다. 작자 고증에 있어 비교적 정확한 태도를 취한다고 평가받는 진본 『청구영언』을 비롯하여 당시 음악계의 상황을 잘 말해주는 『해동가요』 등에서 이 작품의 작자가 상이하게 표기된 현상은 가집이라는 자료군을 통해서 이 작품의 작자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작품은 여러 문집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조식과 양응정에 대한 언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신 길재, 김인후, 김응정, 이몽규(李夢奎), 김령(金玲)의 작품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은 김응정 창작설이다. 김응정의 문집인 『해암집』에 이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김응정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인근 지역에서 활동한 서봉령의 문집인 『매학선생유고』에도 한역시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자료의 성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이 작품은 김응정 소작으로 판단된다.<sup>38)</sup>

이 시조를 한역한 서봉령에 따르면 이 작품은 중국 당나라 두보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기운 것은 타고난 성질이라 빼앗을 수 없다[葵藿傾太陽 物性固莫奪]”<sup>39)</sup>라는 구절에 화답한 것이라고 한다. 서봉령은 초야

38) 진동혁은 김응정의 『해암집』과 『부언일부』의 기록을 통해 이 작품이 김응정의 소작이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고, 김명순은 여러 가집과 문집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작품이 김응정 소작임을 변증한 바 있다. 신경석 외, 『고시조 문헌 해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서봉령(徐鳳翎), 『매학선생유고(梅壑先生遺稿)』 한국역대문집총서 462, 경인문화사, 1991; 진동혁, 앞의 논문; 김명순, 『시조 <삼동에 배웃 입고>의 문헌 전승 양상 연구』, 『시조학논총』 24, 한국시조학회, 2006.

39) 두보, <자경부봉선현영회오백자(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

에 있으면서도 임금을 잊지 못하는 충성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관한 김응정의 덕을 찬양하기 위하여 시조를 한역했다고 그 동기를 밝혔다.<sup>40)</sup> 여기에서 서봉령이 이 작품의 주제를 충군과 우국으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속 화자는 한겨울 바위굴에서 벼옷 차림으로 눈비를 맞고 있다. 삼동으로 상징되는 한겨울 추위 속에서 눈비를 막지 못하는 벼옷은 화자의 딱한 처지를 부각시키며 동시에 화자가 벼슬을 하지 않은 포의지사(布衣之士)임을 의미한다. 또한 앞서 작자 김응정이 임금의 상을 치를 적에 벼옷을 입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화자를 서럽게 만드는 것은 서산에 해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는 군주를 상징하므로 지는 해는 승하한 임금을 뜻한다.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화자는 임금의 승하에 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별뿔을 쥔 적이 없다는 화자의 고백은 화자가 성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화자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여 임금과 정사를 함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 작품은 임금에 대한 충성을 노래하고 있지만 불우한 처지에 대한 자기연민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김응정에게 벼슬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앞선 말한 것처럼 충효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상국이었던 정철과 방백이었던 최관<sup>41)</sup>이 그를 추천하여 1607년에 경릉참봉에 제수됐으나 그는 벼슬에 응하지

40) “又櫛枯解菴金處士聞明廟昇遐，悲歌一闋，以續和杜老，“葵藿傾太陽，物性固莫奪”之遺音餘韻，以闡揚畝忠嫠憂之潛德幽光四絕併序。” 서봉령, 『매학선생유고』 권1. <又櫛枯解菴金處士聞明廟昇遐悲歌一闋(하락)>

41)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김응정을 천거한 최관(崔瓘)이 전라도 관찰사로 재임했던 시기는 1607년 전후이다. 이 시기는 선조 말년에 해당된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40년(1607) 5월 19일자 기사 및 같은 해 7월 11자 기사 참조; 이의경, 『해암김선생행장』, 『해암집』 참조.

않았다.<sup>42)</sup> 『해암집』 중간본의 서문을 작성한 기우만은 김응정이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일에 관해 후인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응정이 조정의 불화를 예견하고 은거했기에 당고(黨錮)의 화를 입지 않은 사람이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sup>43)</sup>

김응정이 생존했던 조선 중기는 조선 후기와 같은 일당 독재와 경향 분기가 아직 심화되지 않던 시기였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김응정은 균량미를 제공하고 사우를 세우는 일에 협조했을 정도로 재지사족으로서의 사회경제적 조건도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기우만의 설명처럼 당대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그에 따른 정치적 의지의 소산일 가능성이 높다.<sup>44)</sup> 이러한 현실 인식은 아래의 시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꿈의 白鷗되어 江上의 노라 빈다  
 늑늑니 채 놀며는 九重天의 가련마는  
 굴욕의 이슬이 짓터시니 놀애 저줄가 못 노노라

화자는 꿈 속 백구가 되어 강 위를 날고 있다.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택한 것은 그만큼 화자의 소망이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갈매기로 변신한 화자는 본인이 아주

42) 조응록은 자신의 『죽계일기』에서 선조 40년 곧 1607년에 김응정이 경릉참봉(敬陵參奉)에 제수됐다고 기록했다. 조응록, 『죽계일기』 권9 참조.

43) “但其不仕一節，明君在上，碩輔滿廷，又相與汲引，彙征其時，而一副韜晦，故後人或疑其迂而不返，而乃若其志則先見朝廷之不和，翩然高蹈，爲黨錮完人，所謂伯仲於南冥·大谷，果其實際也。” 기우만, 『서문』, 『해암집』 중간본 참조.

44) 앞서 말한 것처럼 문집에 부기된 기록은 후대에 첨가된 기록일 가능성이 높기에 배제해야겠지만, 이 작품은 김응정에게 직첩이 내려왔으나 이 작품을 짓고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는[職帖下作此不起] 기록이 있다.

높이 난다면 구중천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구중천은 임금의 거처를 상징하는 공간이므로, 화자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바로 임금의 곁이다. 그러나 하늘을 가린 구름과 구름 속 이슬에 날개가 젖을까봐 전전긍긍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화자의 소원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화자는 짙은 이슬 때문에 날개를 펼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구름과 이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갈매기의 날갯짓을 가로막는, 곧 임금의 곁으로 가고 싶은 화자를 방해하는 존재를 의미한다.<sup>45)</sup> 결국 이 작품은 임금에게 가고 싶지만 구름과 이슬로 상징되는 부정적 세력으로 인하여 임금 곁에 갈 수 없음을 토로하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

앞의 두 작품에서 화자는 공통적으로 천상의 존재를 그리워하며, 천상이라는 특별한 공간에 가고 싶어 한다. 포의지사의 신분으로 눈비를 맞으며 암혈에 있는 화자는 서산에 지는 해를 안타까워하며, 비록 꿈이지만 한 마리 백구가 되어 강가를 날고 있는 화자는 저 높은 구중천에 있는 존재에게 갈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화자가 작자의 대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김응정은 자기 자신을 천상이 아닌 공간에 있는 존재로 형상화했는데 이는 향촌에서 처사로 일생을 보낸 김응정의 실제 삶과 아주 닮아 있다. 그런데 김응정은 은둔과 칩거로 일생을 보내지 않았다. 자신의 생활 공간인 향촌과 관련된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실현하고자 했다.

먼저 김응정은 강진에 위치한 전라병영의 이설을 청하는 상소를 작성

45) 김응정과 비슷한 시기 남원의 재지사족이었던 정훈은 인목대위가 폐위되고 영창대군이 살해된 사건을 듣고 시조 <탄북인작변가(嘆北人作變歌)>를 지으면서 복권 권의 음흉함을 구름으로 형상화한 바 있다. “뒷 뒷 땀 땀 구름 압 들에 퍼지거나 / 바람 불디 비 올지 눈 올지 서리 올지 / 우리는 하늘 뜻 모르니 아르달 줄 모르리다”. 권순희, 『17세기 남원지방 재지사족의 동향과 정훈의 시가』, 『어문논집』 39, 민족어문학회, 1999, 206쪽.

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여기에서 그는 병영이 다시 담양과 광주 등지로 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찍이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연해지역으로 왜구의 침범이 빈번해지자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관방들이 이설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이유로 전라 병영이 광주에서 연해 지역의 강진으로 옮겨왔다. 선조 32년(1599) 임진왜란 이후 진관체제의 대대적인 정비가 일어나면서 전라 병영이 장흥으로 옮겨졌으나 그곳 민심이 이반된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다시 6년 만에 강진으로 복귀됐다.<sup>46)</sup> 그런데 병영이 있는 지역의 마을과 백성들은 세금을 내는 대신 병영의 각종 부역과 성축의 보수에 동원됐기 때문에 그 부담이 여간 심한 것이 아니었다.<sup>47)</sup> 상소에서 김응정은 전라병영이 강진에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전략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 외에도 강진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호소하고 있다.<sup>48)</sup> 이러한 점에서 김응정의 상소는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강진 지역의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김응정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중앙의 정책과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적지 않은 용기와 책임감이 뒤따르는 일이다. 전에도 강진 지역에서 적지 않은 명망이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하여 김응정은 지역민들의 보다 두터운 신뢰를 얻었으며 양반으로서 나름의 사회적 명망과 위신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응정은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 활동을 위한 격문을 지었다. 현재 격문

46) 강진군·강진문화원, 『강진군지』 1권, 강진군지편찬위원회, 2012, 169~176쪽 참조.

47) 위의 책, 182쪽 참조.

48) “國家爪牙莫重於軍卒，本爲輪番練養以備緩急，而惟我全羅兵營則別無私器勢不得已，凡百需用放軍自給，雖有良將未免循常，羅吏任使令者外，寂無立防，盡定差備，未畢差備，疊督貿販，未畢貿販，疊督運雜，價一年三番，一身百罹膏血日枯，流殍歲增，因致禍延戚族，殃及隣里，怨騰五十官，毒流百萬家，雖至新選正兵，亦捧價布者，兵營在小縣之境，不兼邑倅不食邑俸故也。此其二弊也。” 『청이병영소(請移兵營疏)』, 『해암집』 참조.

의 내용이 온존하게 전하지는 않지만 『해암집』 중간본에 그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sup>49)</sup> 거기에 함께 수록된 금릉창의(金陵倡義)<sup>50)</sup>의 명단에 따르면 그는 여러 고을에 격문을 보내고 의병장 고종후에게 의곡 500석을 보내 도운 것으로 되어 있다.<sup>51)</sup> 당시 의병항쟁은 국지적 범위 안에서 소규모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것은 의병항쟁이 재지사족의 영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지사족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이들 간의 상호 결합은 의병항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었다.<sup>52)</sup> 이러한 점에서 김응정이 소금과 군량을 제공하고, 강진을 중심으로 한 금릉창의에 참여하여 의병활동을 호소하는 격문을 작성했다는 사실 등은 그가 강진 지역에서 나름의 경제력과 사회적 명망을 가지고 있었던 재지사족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sup>53)</sup>

전란이 끝난 이후 김응정은 향촌에서 사족의 지배 질서를 확립하는 일에 동참했다. 1611년 김응정은 이후백(李後白)의 사우를 세우는 일에 조

49) 「창의격문(倡義檄文)」, 『해암집』 중간본 참조

50) 여기에서 금릉은 강진의 옛 이름으로 금릉창의는 순창군수를 지낸 김억추의 발의로 시작되어 많은 이들이 의곡을 원납하고 참여했으나 이 지역에 왜군의 침입이 없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강진군·강진문화원, 『강진군지』 1권, 강진군지편찬위원회, 2012, 241~242쪽 참조

51) 고종후는 1592년 의병장이었던 아버지 고경명과 동생 고인후가 금산전투에서 죽자 이듬해 다시 의병을 일으켜 진주성을 사수하던 중 순절한 인물이다. “金應鼎, 道康人, 字士和, 敬陵參奉, 發檄列邑, 義穀五白石, 送助復讎將高從厚軍.” 『금릉창의록』, 『해암집』 중간본 참조

52) 장동표, 「17세기 초반 밀양 재지사족 손기양의 향촌활동」, 『한국민족문화』 3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182쪽 참조

53) 현재 김응정은 강진의 덕호사(德湖祠)라는 사우에 배향되어 있다. 덕호사는 원래 금호사(錦湖祠)라는 명칭으로 숙종 12년(1686)에 강진 유림들의 발의로 세워졌다. 이곳에는 강진과 관련된 최부, 최극충, 오신남이 배향되어 있다. 지역 유림들에 의해 김응정이 사우에 배향됐다는 사실은 향촌 사회에서 김응정의 사회적 위신이 상당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팽년(趙彭年)과 백진남(白振南) 등과 함께 힘을 모았다.<sup>54)</sup> 향사의 대상이 되는 이후백은 비록 경남 함양에서 태어났지만 9세 때 양친을 모두 잃고, 16세에 조모를 모시기 위하여 조모의 친정인 강진에 머무르면서 백광훈·최경창과 교유했고, 36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이후 여러 벼슬을 하면서 청백리로 매우 유명한 인물이다.<sup>55)</sup> 김응정을 비롯한 강진의 사족들이 이후백의 사우를 세우고자 한 것은 이후백이 강진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김응정과 교유한 광기수의 「금릉사마제기」에 따르면 강진은 궁벽한 고을로서 과거 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지 못하여 생원진사시에 급제한 이들을 위한 사마제를 두지 못했으나 이후백의 급제 이후 광기수를 비롯하여 최응두·조팽년·임자신 등 후진들이 연이어 과거에 급제했다고 한다.<sup>56)</sup> 광기수와 조팽년 등은 이후백의 뒤를 이어 과거에 급제했고, 백진남은 자신의 아버지 백광훈이 이후백 문하에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이후백의 사우를 세우고자 했을 것이다. 반면 김응정은 이후백과 별다른 인연이 없었지만 강진을 대표하는 이후백의 사우 건립을 통해 고향의 명예를 고취하고 전쟁 이후 향촌에서의 사족질서를 재건하기 위하여 힘을 모았

54) 최시필(崔時弼), 「고행려산군수증좌승지계음조공행장(故行礪山郡守贈左承旨溪陰趙公行狀)」, 이의경, 「고행려산군수증좌승지계음조공행장(故行礪山郡守贈左承旨溪陰趙公行狀)」, 조팽년, 『계음집』 권6.

55) 조선 후기 관찬 지리서를 대표하는 『여지도서』 강진편에 수록된 인물 중에서 가장 영달한 인물이 바로 이후백이다. 변주승 역주, 『여지도서』 47 전라도 IV, 디자인하름, 2009, 44~48쪽 참조.

56) “吾鄉舊無司馬齋，蓋僻陋故也。設縣數百年來，人多彎弧士卒挾書，登名連榜者絕無而僅有雖而不多其不設齋也。固也曩者幸李判書後白青蓮先生，以文章聞而崛起於將絕之際，意者天其啓佑我偏荒之士子歟。自是頗有後進項背相望，與青蓮先生同一時者，崔君應斗·趙君彭年·林君自新而郭期壽亦其一也。人才之出於斯爲盛，而設齋則有未遑焉。厥後青蓮損館應斗就木，蕙歎空切，松茂無日，歲在己酉三人同榜李復吉·郭致堯·金宅善其人也。可謂一鄉之盛事，從前之所無則不可不置齋籍名，以擬列邑之事，而亂離之餘私財赤立公力難得，有志未就者，四五載於今，吾黨之歎，寧有既乎。” 광기수, 「금릉사마제기」, 『한벽선생문집』.

던 것으로 여겨진다.

앞선 말한 것처럼 사족에게 관직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김응정은 조선시대 사족들의 이상인 입신양명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 비록 그것이 혼란스러운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의 소산이라 할지라도 현실 정치에 대한 열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채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김응정은 자신의 생활공간인 향촌에서 의병 활동을 위한 격문을 작성하고 강진을 대표하는 인물인 이후백의 사우를 건립하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실현하고자 했을 것이다. 또한 강호자연에서의 자유로운 생활과 그곳에서의 풍류를 즐기면서 개인적 고민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 2) 대안적 공간인 강호자연에서의 풍류

김응정은 사족으로서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벼슬을 누차 거절하면서 강호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생활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sup>57)</sup> 또한 산수를 좋아하고 지기(志氣)가 초탈하여 지역의 명산 승구를 찾아다니며 살만한 곳에는 집을 지어 왕래했는데 봉황대, 정선대, 삼가정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sup>58)</sup> 행장에서는 봉황대가 구포에<sup>59)</sup> 정선

57) “松江鄭相國澈，方伯崔公瓚相，繼薦聞授敬陵參奉，累徵終不起，偃仰林丘，嘯嗷泉石，有永矢不諼之意。” 이의경, 『해암김선생행장』, 『해암집』 참조.

58) “素性愛山水，志氣超脫，凡域中名山勝區足跡迥遍焉，而其所卜築，而杖屨往來者，則在九浦之上曰鳳凰臺也，在月出之南曰停仙臺也，在冠山之旗岳者曰三佳亭也，皆有所寓意而名者也。” 이의경, 위의 책 참조.

59) 구포(九浦)는 강진현 남쪽에 위치한 구십포(九十浦)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구십포는 월출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남쪽으로 흘러 강진현 서쪽의 물과 합쳐진 곳이라고 한다. 오늘날에는 이 지역을 구강포라고 부르고 있다. 『해암집』에서는 봉황대의 유적이 강진 칠량면에 아직 남아 있다고 했다. 그리고

대는 월출산 남쪽 백운동에, 삼가정은 관산의 기암에 세워져 있다고 되어 있다.<sup>60)</sup> 정선대를 제외하고 봉황대와 삼가정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관련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이들 누정들은 자신의 고향인 강진과 그 주변 지역에 건립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누정이라는 공간이 유관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들 누정이 강진과 인근 지역에 건립됐다는 사실은 김응정이 자신의 생활공간인 향촌을 중심으로 풍류를 즐겼으며, 이들 누정을 건립할 만큼의 재지사족으로서의 경제적 여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들 작품을 통해 강호자연 속에서 김응정이 추구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佳水佳山亭亦佳 물 좋고 산 좋고 정자도 좋고  
 一佳難得況三佳 한 가지 좋은 것도 얻기 어려운데 하물며 세 가지 좋은  
 것이라.  
 三佳亭上逢佳客 삼가정에서 좋은 손님 만나니  
 名則三佳寶四佳 이름하여 삼가정이지만 네 가지 좋음이 보배롭구나.

위의 시는 <제관산삼가정(題冠山三佳亭)>으로, 관산에 있는 삼가정

『호남누정 기초목록』에서는 봉황대가 비록 현존하지 않지만 강진 칠량면에 있었다고 한다.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편, 『호남누정 기초목록』, 지역문화교류재단, 2015, 193쪽.

60) 관산(冠山)은 천관산(天冠山)의 또 다른 이름이며, 기암(旗岳)은 기역산(騎驛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기역산은 전라남도 장흥군의 부산면 지천리·유량리와 유치면 대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봉우리 전체에 바위더미가 높이 솟아 있다. 앞에는 말코와 흡사한 바위, 뒤에는 칼 모양의 바위가 있어 장군이 칼을 차고 말 탄 것과 같다고도 하여 기역산이라고 부르는데, 깃발처럼 솟은 산이라는 ‘기암(旗岳)’이라는 뜻이 기역산의 실제 모습을 형상화하여 지칭한 것이 아닐까 한다. 『호남누정 기초목록』에서도 삼가정이 현존하지는 않지만 장흥군 부산면에 위치했었다고 되어 있다.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편, 위의 책, 214쪽; 국토지리정보원 편,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0, 549쪽.

을 표제로 한 시이다. 삼가정은 명칭 그대로 세 가지 좋은 것이 있는 정자이다. 그렇다면 삼가는 무엇인가? 화자는 기구에서 물, 산, 정자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화자는 승구에서 한 가지도 얻기 어려운데 세 가지를 함께 얻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전구와 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삼가정을 더욱 보배롭게 만드는 것은 삼가정을 찾은 가객(佳客)이다. 여기에서의 손님은 김응정과 함께 교유한 사족을 의미할 것이다. 김응정과 같은 재지사족들은 다양한 계회를 통하여 향촌 사회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했으며 동시에 그러한 모임 속에서 시조를 창작, 향유했다.<sup>61)</sup> 삼가정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김응정의 한시는 김응정이 추구하던 가치가 산수로 상징되는 강호자연과 그곳에서의 풍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재지사족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아래의 시는 <제정선대(題停仙臺)>이다. 표제로 삼은 정선대는 월출산의 남쪽 백운동에 있던 누대였다. 정선대가 위치한 월출산은 전라남도 영암군의 영암읍과 강진군 성전면의 경계에 위치한 산으로, 기암괴석이 많아 호남의 소금강(小金剛)이라고 불리는 명산이다.<sup>62)</sup> 아마도 김응정은 인근에서 명승지로 유명한 월출산에 정선대라는 누대를 짓고 이 시를 창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松林古洞裏 송림 속 옛 마을  
 結屋小溪頭 시냇가에 집을 지었네.  
 碧岫當軒上 산봉우리는 처마 위에 걸리고  
 長川繞砌流 긴 냇물은 섬돌을 휘감아 흐르네.  
 簷前松籟爽 처마 앞 소나무를 스치는 바람 상쾌하고

61) 이상원, 앞의 책, 162~170쪽 참조; 송재연, 「용담 김계의 시조 향유에 나타난 문학적 지향」, 『한민족어문학』 63, 한민족어문학회, 2013, 151~178쪽 참조.

62) 국토지리정보원 편, 앞의 책, 597쪽.

窓外竹陰幽 창 밖에는 대나무 그늘 그윽하네.  
 雨後溪山興 비 온 뒤 계산의 흥취 일어나니  
 扶藜散步遊 지팡이 짚고 거닐어 보네.

早知山水味 일찍이 산수의 맛을 알아  
 長臥白雲中 구름 속에 길게 누워 지내네.  
 濯足巖邊水 바위가 물에 발을 씻고  
 療飢澗畔松 시냇가 소나무에서 허기를 달래네.  
 秋來翫皓月 가을이 오면 밝은 달을 즐기고  
 春去弄清風 봄이 가면 맑은 바람을 즐기네.  
 物外逍遙處 만물 밖에 소요하니  
 廖廖心自空 마음은 절로 텅 비어있네.

제1수 함련에서 화자는 처마에 걸린 산봉우리와 섬들을 휘감아 흐르는 냇물을 바라보고 있다. 산봉우리가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존재라면 냇물은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존재이다. 비록 화자는 소나무 숲 속에 있지만, 상반되는 위치에 있는 대상을 모두 조감하고 있다. 그리고 화자가 완상하고 있는 것은 처마 앞 소나무를 스치는 상쾌한 바람과 창 밖에 드리워진 그윽한 대나무 그늘이다. 잡을 수 없는 바람과 시시각각 변하는 그늘은 자연의 은미한 모습을 형상화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은미한 존재들이 일으키는 흥취에 화자는 자연스레 계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2수의 수련과 함련에서 화자는 구름 속에 누워 있기도 하고, 바위와 소나무가 있는 시내에서 탁족을 즐기며 요기를 한다. 화자가 유유자적할 수 있는 것은 수련의 내용처럼 산수의 맛을 알았기 때문이다. 경련에서 화자는 가을이 오면 밝은 달을 즐기고, 봄이 가면 맑은 바람을 즐긴다고 말한다. 화자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수련

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수의 맛을 안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특히 미련에서 화자는 만물 밖에 소요하니 자신이 마음이 절로 텅 비어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소요란 『장자』의 『소요유』에서 기인한 개념으로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의미한다.<sup>63)</sup> 신선이 멈추는 또는 신선을 멈추게 하는 정선대라는 공간과 신선과 같은 자유로운 삶을 뜻하는 소요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은 자기 자신을 신선과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응정과 교유한 광기수는 김응정을 지상에 사는 신선으로 묘사하고, 그의 정신적 지향을 신선의식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停仙臺上地行仙 정선대 위에 머무는 지상의 신선  
 飛步還如腋羽然 날쌔 걸음 겨드랑이에 날개 돋은 듯하네.  
 幾日驂鸞凌倒景 언제 난새 타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  
 赤城玄圃任蹁躚 적성과 현포를 맘대로 유람하러나.

<증김처사(贈金處士)>의 제4수에서 광기수는 김응정을 지행선으로 표현한다. 지행선은 장수한 이에 대한 미칭으로, 지상에 사는 신선을 뜻한다. 실제로 김응정은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장수하여 94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증김처사>는 김응정 노년의 모습을 포착한 듯하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두 개의 공간 적성과 난포는 모두 전설상의 선경으로 유명한 곳이다. 시의 내용처럼 정선대에 있는 김응정이 전설 속의 새인 난새를 타고 신선들의 공간인 적성과 현포에 간다고 한 것은 그의 정신적 지향이 바로 신선의식이었음을 의미한다.<sup>64)</sup> 김응정이

63) 안병주·전호근 역, 『역주 장자』, 전통문화연구회, 2001, 25쪽; 왕카이, 신정근 외 역, 『소요유, 장자의 미학』,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73~74쪽.

64) 광기수의 『한벽선생문집』에는 김응정에 대한 한시로 <송김처사(送金處士)> 1수, <증김처사(贈金處士)> 6수가 실려 있다.

참여하여 격문을 작성한 금릉창의의 명단에 광기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둘이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을 짐작하게 한다.<sup>65)</sup> 그러했기에 광기수는 김응정의 신선의식을 간취하여 이와 같이 형상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응정이 신선의식과 더불어 소요로 대변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생활공간인 향촌을 대신하는 강호자연이라는 대안적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강호자연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없었다면 그러한 삶을 체험하고 향유하기는커녕 소원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 4. 결론

본고에서 살펴본 김응정은 재지사족이라는 정체성이 추구하는 출사와 그에 따른 입신양명이라는 이상을 스스로 거부한 인물이다. 어느 시대든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의 선인들은 하나의 신분적 정체성 속에서 그것을 일생 동안 유지한 채 살아갔다. 설령 김응정의 선택이 당대 정치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지라도 자신의 삶과 의식에 있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향촌이라는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다른 사족들과 함께 향촌 질서를 수립하고 전란 이후의 질서를 복구하는 일에 진력하면서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만으로는 자신

65) 김응정의 『해암집』 중간본에는 금릉창의와 관련된 인물 38명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광기수는 물론 김응정과 이후백의 사우를 함께 건립한 조팽년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광기수의 『한벽선생문집』과 조팽년의 『계음집』에도 금릉창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명단에 공통적으로 김응정이 수록되어 있다. 광기수, 『금릉창의록』, 『한벽선생문집』; 조팽년, 「창의록」, 『계음집』 권6.

의 고민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었다. 그렇기에 그는 강호자연이라는 대안적 공간에서 신선으로 상징되는 자유로운 삶을 향유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족들과의 교유와 풍류 생활을 통해 자신의 고민을 해소, 위로하고자 했다.

조선 중기 재지사족 작가들 중에서 김응정과 같은 삶을 산 이들이 적지 않다. 사족이라는 사회적 정체성과 그에 따른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채 강호자연이라는 대안적 공간에서 생활하며 생을 마친 많은 작가들. 이들의 삶과 의식, 작품 세계를 반추하여 조선 중기 재지사족들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일을 향후 과제로 기약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사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장자』, 『조선왕조실록』.  
국토지리정보원 편,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0.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전라도읍지』 1,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편, 『호남누정 기초목록』, 지역문화교류재단, 2015.

- 곽기수, 『한벽선생문집』, 한국역대문집총서 455, 경인문화사, 1991.  
곽기수, 이백정 역, 『한벽당선생문집』, 한벽당곽기수선생 기념사업회, 2008.  
김응정, 『해암집』 초간본(1773년)과 중간본(1905년).  
김응정, 양광식 역, 『해암문집』, 강진문헌연구회, 1994.  
서봉령, 『매학선생유고』 한국역대문집총서 462, 경인문화사, 1991.  
이몽제·이언근, 『모청당유고·만춘집』, 전라남도, 1987.  
이의경, 『동강선생유고』, 한국역대문집총서 457, 경인문화사, 1991.  
이하근, 『두타초』, 한국문집총간 191, 민족문화추진회, 1997.  
위백규, 『존재집』, 한국문집총간 243, 민족문화추진회, 2000.  
조팽년, 『계음집』 한국문집총간 속6, 민족문화추진회, 2005.

### 2. 논문 및 단행본

- 강진군·강진문화원, 『강진군지』 1권, 강진군지편찬위원회, 2012, 1~628쪽.  
강진군 마을사 편찬위원회, 『강진군마을사 병영면편』, 강진군, 1991, 1~434쪽.  
권순희, 『17세기 남원지방 재지사족의 동향과 정훈의 시가』, 『어문논집』 39, 민족어문학회, 1999, 194~221쪽.  
김동수 교감·역주, 『교감·역주 호남절의록』, 경인문화사, 2010, 1~659쪽.  
김명순, 『시조 <삼동에 배운 입고>의 문헌 전승 양상 연구』, 『시조학논총』 24, 한국시조학회, 2006, 47~85쪽.  
김석희,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이회문화사, 1995, 1~369쪽.  
김성우, 『조선시대 ‘사족’의 개념과 기원에 대한 검토』, 강만길 편,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2000, 321~375쪽.

- 배대웅, 『조선시대 강진 지역 시조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95쪽.
- 송재연, 「용담 김계의 시조 향유에 나타난 문학적 지향」, 『한민족어문학』 63, 한민족어문학회, 2013, 151~178쪽.
- 신경숙 외, 『고시조 문헌 해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1~620쪽.
- 장동표, 「17세기 초반 밀양 재지사족 손기양의 향촌활동」, 『한국민족문화』 3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171~201쪽.
- 전광현, 「김응정의 시조」, 『국어사와 방언』 3, 월인, 2003, 125~137쪽.
-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1~637쪽.
- 중앙일보사 편, 『성씨의 고향』, 중앙일보사, 1989, 1~2562쪽.
- 진동혁, 「김응정 시조 연구」, 『국어국문학』 90, 국어국문학회, 1983, 279~297쪽.
- 진동혁, 「김응정론」, 한국시조학회 편,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114~135쪽.
- 왕카이, 신정근 외 역, 『소요유, 장자의 미학』,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1~590쪽.
- 이상원, 『17세기 시조사의 구도』, 월인, 2000, 1~317쪽.

## ABSTRACT

## The life and literary world of Haeam Kim Eung-Jung

Jung, Ki-sun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life and literary world of Haeam Kim Eung-Jung. He was a country nobleman who was writer of Sijo poetry who lived in Gangjin during the 16 and 17th century. Until now, the researchers of Sijo poetry could not obtain the first-edition of Haeam-jip published in 1773. They could only use a revised-edition which was published in the year 1905. This study compared the first and revised edition of Haeam-jip. The study focussed on analyzing Sijo poetry and Hansi (Chinese poetry) of the first edition and thus reviewed the literary world of the writer in a new perspective. It also reviewed the author's consciousness, and studied the writer in detail by reconstructing his life. This could be possible by not only studying Haeam-jip, but also, referring to the related collections of literary works of various writers.

Kim Eung-Jung tried to confirm and realize his identity as a writer of noble birth in his birth-place and home-town, Gangjin. He lived a life devoted to Confucian ideas of so-called filial piety and had a profound interest in politics of central Joseon Dynasty. However, he spent his entire life in his living space which was a country village, after refusing to enter government service. The refusal brought him worries and conflicts as he had himself rejected a way to realize his ideal life as a nobleman participating in politics. So, he tried to resolve his worries by living in an alternative space of Nature, being close to rivers and lakes.

**Key Words** *Kim Eung-Jung*(金應鼎), *Haeam-jip*(懈菴集), Sijo(時調), Gangjin(康津), country nobleman(在地士族), country(鄉村), nature(江湖自然)

논문투고일	: 2016.04.15
심사완료일	: 2016.04.30
게재확정일	: 2016.05.08